

작년 광주 수출 12.6% ↑… 증가율 특·광역시 1위



GGM 공장 내부 전경

수출액 175.2억 달러…자동차 9.1%·반도체 40.2% ‘급증’
자동차,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확대로 질적 성장
반도체, 패키징 ‘두각’…올해도 주력산업 성장세 지속 전망

지난해 광주지역 수출 증가율이 12.6%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의 지난해 특·광역시 수출 증감률 동향을 분석

한 결과, 광주시 수출액은 175억2000만달러로, 전년 155억5000만달러 대비 12.6% 증가했다. 이는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이어 대전 9.1%, 대구 1.8%, 인천 1%, 서울 0.5% 순이었다.

광주지역 수출 증가는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이 이끌었다.

자동차 수출액은 75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9.1%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특히 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 비중이 확대돼 단순 물량 증가를 넘어 수출 단가 상승을 동반한 질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수출은 57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0.2% 급증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에 따른 고성능 메모리 수요 증가와 함께 지역 내 첨단 후공정(패키

징)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수출 확대를 뒷받쳤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반도체 수출이 급증했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0.8% 감소했으나 주력 품목인 자동차 수출액이 40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미 수출 전반의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지난해 수입액은 87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7.9% 증가했다. 수입액 중 중간재 비중이 88.4%를 차지,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생산 확대에 따른 부품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나순 시 창업진흥과장은 “올해도 친환경차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첨단 후공정(패키징) 수요에 힘입어 지역 주력 산업 중심의 수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해외 마케팅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경기 둔화·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 수출 590억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2025 수출입 동향

AI 데이터센터 등 반도체 수요 증가…냉장고 2년째 감소
김·과실 등 농림수산물 역대최대 실적…석유제품 등 부진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590억여원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자동차·반도체를 비롯해 김·과실 등의 농림수산물도 수출 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등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회비가 엇갈렸다.

3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25년 연간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590억2000만달러, 수입은 6.2% 감소한 449억4000만달러, 무역수지는 140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지역은 타이어, 냉

장고 등의 수출이 감소했지만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75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9.1%), 반도체(40.2%), 자동차부품(39.8%),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58.0%)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메모리 가격 상승, 글로벌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2% 늘었다.

반면 주요 수출 품목인 고무제품(-21.9%), 냉장고(-29.5%) 등의 수출은 감소했고, 이중 냉장고 수출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23년도 9억4000억달

라에서 5억9000만달러로 감소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등 주요수출 품목이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여 전년 대비 8.9% 감소한 415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낮은 유가와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농림수산물의 경우 김, 쌀 등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인 8억8000만달러를 달성했다.

이중 김과 쌀 수출이 각각 28.8%, 43.3% 증가하며 수출 선전을 이끌었다.

김의 경우 지난해 김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전남지역의 수출은 1억8800만달러를 기록해 전체 김 수출의 38.0% 차지했다.

쌀 수출도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2024년도 수출이 없던 쿠바로 8700만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수출국 1위에 올랐다.

이밖에에도 수출 주요 품목 중 하나인 미

역 수출도 전년 대비 9.9% 증가한 2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면에서는 광주지역 수입의 88.3%를 차지하는 중간재 수입이 전년 대비 19.9% 증가하면서, 전체 수입은 17.9% 증가한 반면, 전남지역에서는 수입의 74.8%를 차지하는 1차 산품 수입이 전년 대비 13.5%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 감소세를 주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협회는 점진적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민간 실질소득 회복, AI 부문 투자 확대 등으로 3%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교역에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주요 국가들의 통상정책 강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외 현지 생산 비중 증가 등으로 수출 제한 가능성도 내비쳤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는 자동차·반도체 호조로 선전했으나, 전남은 석유·석유화학 부진으로 수출의 지역·품목 간 양극화가 발생했다”며 “광주·전남지역은 주요 수출 품목들이 편중돼 대외 환경 변화에 민감한 만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농협 전남분부는 최근 본부 4층 라운지에서 설 명절을 맞아 전남광역농산물 브랜드 ‘상금애’ 과일 선물세트를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올해 첫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다.

농협 전남분부, 설 선물세트 라이브커머스

광역농산물브랜드 ‘상금애’ 최대 40% 할인 판매

농협 전남분부는 최근 본부 4층 라운지에서 설 명절을 맞아 전남광역농산물 브랜드 ‘상금애’ 과일 선물세트를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올해 첫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송은 네이버 쇼팡라이브 채널 ‘농협맛집 팍스토어’와 농협몰 라이브를 통해 송출됐으며, 나주배(나주조공법인), 무농약 레드향(고흥), 사과(장성) 등 전남 대표 과일 선물세트를 특별가로 선보였다.

또 방송 참여 구매 인증 고객 중 20명을 추첨해 영암조합공동법인의 끌고구마 5kg을 이벤트 사은품으로 증정했다.

전남분부 광역연합사업단은 전남광역농산물 과일·채소 브랜드 ‘상금애’를 널리 알리고 전남 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전남 광역농산물 브랜드 활성화 추진’ 사업비를 활용해 소비 만족과 할인 차익 등을 지원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남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심협력의 정신으로 전남광역농산물 브랜드 홍보와 온라인 판매를 확대해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농촌경제연구원·수협중앙회
농어촌 가치실현 업무협약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수협중앙회는 3일 연구원 7층 세미나실에서 농어촌 공동 가치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어촌 공동 정책 발굴,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적 교류·협력, 농어업 통계 및 어촌 조사 정보 공유, 연구 인적자원 교류, 기타 농어촌 정책연구 분야에 관한 활동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결집, 실질적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두봉 원장은 “양 기관이 힘을 모아 농어촌의 위기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갈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원은 농어촌 현장의 정책 수요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와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우리 농수산업이 직면한 공동의 과제를 함께 대응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협력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

영구임대 ‘그린리모델링’…에너지 30% 절감

광주도시공사, 우산·금호·쌍촌 250세대 창호·단열 교체
올해 49억 투입 사업대상 확대…인터넷 인프라 구축도

광주도시공사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가 진행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영구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입주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우산·금호·쌍촌동 일대 노후 임대주택 250세대를 대상으로 고효율 창호 교체, 친환경 단열재 보강, LED 조명 설치 등을 중심으로 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했다.

공사가 자체 실시한 에너지 효율 분석 결과, 리모델링 완료 가구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시공 전과 비교해 약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비와 냉방비 등 관리비 부담이 줄면 서 고물가 시대 서민 주거비 절감 효과

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단열 성능이 개선돼 체감 온도가 달라졌다”, “도배·장판 교체로 주거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공사는 올해 총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해 사업 대상을 전년 대비 38%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공공·민간 협업을 통한 기기인터넷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 입주민 통신환경 개선에 나선다.

공사 기간 중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사(빈집)를 활용한 ‘순환형 이주 대책’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 시행한다. 현장 밀착형 민원 대응팀을 운영해 주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지



난해 사업을 통해 축적한 시공 데이터와 입주민 피드백은 공사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올해는 고도화된 리모델링 표준 모델을 적용해 단순 보수를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거공간을 제공할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리모델링 전후 가구별 에너지 효율 변화 수치와 입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단지별 현장 설명회를 열어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세관, 중기·소상공인 원산지검증 지원

9~20일 관세청 FTA 포털서 접수…최대 200만원

광주본부세관은 3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 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을 적용

하는 절차로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다.

광주세관은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관세사를 신청 중소기업 등에 파견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참여 희망기업은 9일부터 20일까지 관

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세관은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통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청년창업가 모여라” 중진공 입교생 모집

13일까지 접수…최대 2억원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13일까지 청년창업사관학교 16기 입교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2011년 개교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올해로 16년차를 맞았으며 총 9319명의 청년 창업가를 배출했다. 지난해에는 코스닥과 코넥스에 각각 1개 기업이 상장됐고, 유니콘 기업 5개사가 지정되는 성과를 냈다. CES 2026에서는 최고혁신상 2개사와 혁신상 26개사가 수상하며 글로벌 경쟁력도 입증했다.

중진공은 올해부터 청년 창업기업의 초기 사업화 성공과 스케일업을 위해 기존 단일 과정에서 기본과정과 디테크·글로벌 심화과정으로 운영 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창업 경험을 보유한 ‘경험 창업가’를 선발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제도전 창업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과정은 기본과정, 디테크 심화과정, 글로벌 심화과정으로 구성된다. 기본과정은 초기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 역량 강화와 BM 수립,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디테크 심화과정은 AI·바이오 등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상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글로벌 심화과정은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맞춤형 글로벌 진출 패키지를 제공한다.

현재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국 19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기본과정 16개소와 글로벌·디테크 심화과정 3개소(서울·광주·경산)로 구분된다.

최종 입교자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본과정 최대 1억원, 심화과정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